

“여름 특수 잡아라” 유통·외식업계는 전쟁중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3월부터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지역 백화점 여름 세일 앞당겨...식품업계 ‘여름 먼’ 경쟁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면서 업계의 여름 마케팅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온이 오르며 유통업계의 에어컨·선풍기 매출은 급증했고 가전업계는 특근·잔업 등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여름 특수 마케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식품업계도 여름 입맛 잡기에 들어갔다.

◇가전업계, 에어컨 대전(大戰)=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에어컨 시즌의 이른 개막을 예상하고 지난 3월부터 생산라인 가동률을 높였다. 3월부터 주·야 2교대로 생산 라인을 풀가동했고 평일에는 잔업(2시간)을 하며 에어컨 생산에 대비했다. 이달 초까지는 토요일 특근(8시간)까지 주 6일 라인을 돌리며 극성수기 체제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경우 가용용 에어컨(스탠드형) 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1~4월)에 견줘 20% 늘었다. 기상청은 이미 ‘2050년 한반도’라는 자

료를 통해 여름 길이가 94일(1911년~1920년)에서 131일(2011년~2017년)로 37일 길어졌다고 분석했다.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도 5월 21일(기존 6월 10일)로 앞당겨졌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둘러 에어컨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 매출도 급증했다. 대우위니아는 올 1~4월 ‘위니아 에어컨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스탠드형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 벽걸이형 모델(인버터 에어컨)은 100% 판매량이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위니아도 지난 달부터 광주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1분기 영업손실을 만회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통업계, 빨라진 여름마케팅 = 유통·식품업계도 여름이 앞당겨지면서 서둘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전년보다 2주 가량 앞당겨 판촉에 들어갔고 여름 과일과 식품 판매도 적극

나서는 추세다.

22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평소보다 2주일 빠른 3월 말부터 선풍기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해 빚어진 선풍기 품귀 현상을 고려해 서둘러 냉방기전을 구입하려는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한달간 선풍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두배가량 늘었다.

지역 백화점들도 여름 정기세일을 앞당기면서 마케팅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평년보다 1주일 가량 빠른 지난 11일부터 ‘서머패션 페스티벌’을 진행중이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9일부터 ‘스포츠·아웃도어 여름 상품전’, ‘초여름 해외 유명 브랜드 데일리룩 대전 & 여성선 상품전’을 열고 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체리, 멜론 등도 1~2주일 빨리 선보이며 고객 발길을 붙들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여름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박 매출의 경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6%, 멜론 20.1%, 블루베리 14.2% 등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외식·식품업계 여름 음식선보여 =

외식업계도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평양냉면’을 앞세워 여름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의 북한음식전문점 ‘광주옥’은 오는 6월초 서구 농성동 본점 외 동구 중장로 2가에 분점을 낸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개시’, 손님 발길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식품업계에서도 대표적 여름 상품인 ‘비빔면’으로 판촉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CU(씨유)는 여름을 앞두고 별도 조리 과정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는 ‘매콤달콤육쌈비빔면’을 새롭게 출시했고 냉라면과 냉우동 등 여름 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3월 ‘진짜쫄면’을, 풀무원의 물냉면과 막국수 등 신상품을 내놓고 ‘여름철 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무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고되면서 업계 마케팅 경쟁이 뜨겁다”며 “여름 보양식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빗물 제거기로 비닐 사용 줄입니다”

환경 보호·경비 절감...유·스퀘어, 1·3 게이트 앞 설치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입니다.’

유·스퀘어가 젖은 우산을 위한 일회용 비닐 대신, 친환경 빗물 제거기(사진)를 설치했다.

우산 빗물 제거기는 우산에 묻어있는 빗물을 닦는 장비로, 별도의 전기를 쓰지 않고도 흡수력이 뛰어난 특수 소재를 활용해 우산을 닦고 문지르면 손쉽게 빗물이 닦이는 방식이다.

폐비닐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젖은 우산을 닦을 비닐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유·스퀘어측 설명이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젖은 우산을 담은 일회용 비닐은 그동안 물기가 있어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왔다”며 “빗물제거기로 일회용 비닐 사용도 줄어들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스퀘어는 친환경 빗물 제거기를 우선시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유·스퀘어 1·3번 게이트 앞에 설치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어린이의 꿈 응원합니다” 캘리그래피 등 문화체험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1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여명을 초청해 문화 체험 멘토링 봉사 활동을 가졌다.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은 이날 전문 강사와 연계해 ‘감성 향기 캘리그래피’를 주제로 캘리그래피 활동을 펼쳤다. 가정을 달콤하게 지역 어린이들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행복 글귀 엮서 만들기’와 더운 여름을 대비하기 위한 ‘나만의 부채 만들기’ 등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의 기회를 가졌고, 이후 저녁식사로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분기 가계대출 실질금리 연 2.38%

2년 6개월 만에 최고...취약계층 이자 부담 가중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질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변동금리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실질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2~2013년

준는 연 2.38%였다. 이는 2.54%를 기록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 물가상승률을 뺀 지표다. 대표적인 명목금리 지표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올해 1분기 연 3.68%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였다. 가계대출 실질금리는 2012~2013년

3%대를 찍었다. 그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명목금리도 하락세를 지속, 실질금리도 덩달아 떨어졌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2016년 6월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려간 이후 그해 4분기 실질 가계대출 금리는 연 1.69%까지 떨어졌고 이듬해인 2017년 3분기엔 1.12%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한은이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실질금리도 2%대로 복귀했다. 가계대출 실질금리 상승 배경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올해 들어 지지부진한 탓도 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3분기(0.7%) 이후 가장 낮았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실질금리는 연 2.16%로 나타났다. 잔액 기준 실질금리도 2016년 3분기(2.48%) 이후 최고였다. 가계대출 실질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대출 수요가 여전한 상태에서 실질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일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중고차 허위점검 적발시 업자 퇴출

국토부 등록취소 추진...입고 사진 전산망 등록도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

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차의 성능이 어떤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침수된 적은 없는지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자동차 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 후 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송정역·광주역·목포역

역사내 광고주모집

광주 송정역

목포역

광고 PREMIUM

- ✓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후 이용객 급증
- ✓ 송정시장
- ✓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이용객 증가추이 ↗ (단위: 명)

역명	2015년	2017년
광주송정역	3,998,000	6,908,000
목포역	1,773,000	2,271,000

공식대행사 나코스(유) 010-8822-5425

062-376-5420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